

2019 대입일정 10일 막 올라

‘최대 6회’ 수시지원 횟수 활용 대학별 모집요강 꼼꼼히 체크



주요대학 수시 전형방식 간소화·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완화 ‘학생부종합전형’ 학교마다 내신성적 반영 과목 수·방법 달라

2019학년도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입 일정이 이달 10일 막을 올린다. 대학·전형유형·모집단위별 선발 방식이 상이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최대 6회의 수시지원 횟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형유형별로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지원여부를 정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를, 논술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므로 자신의 모의수능 결과를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모집정원이나 지원자의 증감,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변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보면, 전형 방식의 간소화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완화가 눈에 띈다.

건국대, 국민대, 광운대, 명지대 등은 올해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외대의 경우는 글로벌캠퍼스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경희대와 단국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에 따라 내신 성적 반영 교과목 수와 반영 방법 등 전형요소와 평가기준의 차이가 크다. 대부분 1·2단계의 다단계전형으로 치른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을 994명으로 확대한 한국외대는 1단계서 2~3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적용한다.

내신 성적 3~5등급대의 중위권 수험생이라면 수도권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적성고사 대학을 고려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는 정시모집 지원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수험생들의 소신지원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종로학원 하늘교육 주최로 특목자사고, 일반고 선택 및 대입전략변화 설명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뉴시스

“수시모집 소신지원 경향에 따라 주요 대학이나 특정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따라서 목표 대학은 정했으나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인기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시 2157명… 학교추천 인원제한 없어



건국대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 전체 정원(3328명)의 64.8%인 2157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12일까지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과 KU학교추천전형 선발인원을 확대하면서 학종 모집인원이 전년(1512명)보다 132명 증가한 1644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수시전형에서 전형절차 간소화, 6개 대학 자기소개서 문항 및 평가기준 공통 적용,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등 수험생 대입지원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전형별 선발방식을 보면, KU자기추천전형은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자신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 면접평가 60%로 최종 선발한다. 면접평가는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KU학교추천은 고교별 추천인원에 제한이 없다. 교사 기록 외에 지원자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제출서류인 학생부와 교사추천서 외에 자기소개서를 새로 추가했다. 학생부교과 40%, 서류평가 60%를 일괄 합산해 선발한다.



건국대학교 전경 /건국대

다. 학종전형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

KU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일괄합산해 465명을 뽑는다. 인문계 전 모집단위 대상인 인문사회계 I은 지문제시형으로 출제되고, 경영·상경계 대상인 인문사회계 II는 지문제시형과 수리논증형을 복합한 형태로 출제된다. 자연계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수리·과학 등 자연계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추론능력을 평가한다. 논술고사는 수능이후 치러지는데, 인문사회계 I과 인문사회계 II는 11월 17일 10시에, 자연계는 같은 날 15시에 실시된다. /한용수 기자



장교식 입학처장

정원의 73.3% 수시… K-SW전형 신설

(소프트웨어분야 학생 선발)



경희대학교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전체 정원(5212명)의 73.3%(3822명)를 선발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은 2691명을 뽑고, 논술우수자전형(770명), 실기우수자전형(361명) 순으로 모집인원이 많다. 정시에서는 수능전형과 실기전형을 치른다.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제한된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확대했다.

학생부종합전형(고교연계)은 고교별 최대 6명(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까지 학교장이 추천 가능하며 고교에서 추천 시 대학의 인제상인 문화인재, 글로벌인재, 리더십인재, 과학인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 성적 40%, 서류평가 60%로 전년도 대비 교과 성적 비중을 축소해 교과 성적 이외에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을 선발한다.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시 실기우수자전형에서는 K-SW 전형을 신설했다. 이 전형은 소프트웨어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K-SW 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정된 각 계열별 수능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하며, 탐구영역은 2개 과



경희대 본관 전경. /경희대

목을 모두 응시하되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한다. 한국사는 전 계열 필수 응시로, 인문/자연/의학계열은 5등급 이내(체능계열은 최저 기준 반영하지 않음)를 취득해야 한다.

황윤섭 경희대 입학처장은 “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의 경우 내신 성적은 평가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다. 따라서 합격자 내신 성적 폭이 넓은 특징을 갖는다”며 “학과나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므로 내신 성적과 함께 학생부 기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계열에 유의미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윤섭 입학처장